민선4기 출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전 형 준 화순군수

의료산업 관련기업 유치 새로운 일자리 늘리겠다

한약·기능성 작물단지 조성 장학재단·교육여건 개선

"먼 훗날 화순의 역사에 덕을 갖춘 'CEO 경제군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CEO에서 군 행정 수장으로 변신한 전형준(50)화순군수는 기업경영을 통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화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 군수는 민선4기 화순군 군정목표를 '화합과 변화속에 잘사는 화순 건설'로, 군정방침은 ▲신뢰받는 참여행정 ▲살맛나는 지역경제 ▲조화로운 지역개발로 정했다.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기업 관련 산업유치를 군정 최우선 순위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내평·감도리 지방산업단지에 들어설 (주)녹십자 백신생산 기지를 기반으로 의료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의료장비와 실버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복안을 소개했다. 이와함께 동면·도곡 등 농공단지에는 식품가공 및 1차 부품업체 등 특화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전 군수는 또 "21세기 브랜드 시대를 맞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어 농·축산물이 헐값으로 판매돼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한약 재배단지나 기능성 작물 재배단지 등을 조성, 지역특성에 맞는 고소득 특화 작목을 개발해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전 군수는 화순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향우회를 비롯한 대도시의 네트워크와 연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그는 "어린시절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어 책가방을 들고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이 가장 부러웠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역인재들이 진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향우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교육행정 여건을 개선하는 등 인재육성 지원시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팔순의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전 군수는 사회복지 문제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전 군수는 ▲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탁아시설과 저소득 자녀 유치원비 지원 확대 ▲저소득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사업 확대 ▲동남아 출신 국제결혼 여성들을 위한 문화적 갈등 극복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구상하고 있다.

전 군수는 앞으로 운주사 와불(臥佛) 테마파크 조성, 테마가 살아있는 선사 문화유적 개발 등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전 군수는 지난 3일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동안 본인의 급여 전액을 청소년 육성자금이나 노인 복지기금으로 출연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정 종 해 보성군수

농·수·특산물 특화산업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점

친환경기업 유치 인구 유인 체험·체류형관광상품 개발

"가슴에 품었던 보성발전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하나씩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종해(59)보성군수는 "혁신을 통해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고, 성과와 고객중심의 패러다임으로 군정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군정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비능률적인 전시행정은 철저히 지양하고 성과없는 사업의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과감히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군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해 군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군정'을 구현하겠다는 포부다.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해 보성군 홈페이지(www.boseong.go.kr)에 '열린군정 군수와 함께'라는 비공개 코너를 개설했다. 군정에서 잘못된 점, 억울한 일, 제안 등을 이곳에 적으면 군수가 직접 수렴해 군정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처리결과를 회신해 준다.

정 군수는 민선4기 군정구호를 '풍요로운 녹색의 땅 희망찬 보성'으로 정하고, 주요 역점시책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구현 ▲친환경 농어업 육성과 유통망 구축 ▲미래를 선도할 예향 보성인 양성 ▲권역별 균형개발과 산업기반 확충 ▲체험체류형 문화관광산업 육성 ▲ 참여봉사형 선진복지사회 실현 ▲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으로 정했다.

정 군수는 "중앙부처에서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도 보성발전을 염원했었다"며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사표를 던지기 전 정 군수가 펴낸 책 제목조차 그래서 '나는 고향을 무작정 돕고 싶었다'이다.

정 군수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농어업 예산을 대폭 확충해 친환경, 고품질 농·수·특산물 생산기반 마련과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유발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기업을 유치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군으로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보성·벌교 상권활성화 방안모색을 비롯 ▲녹차 특화사업을 통한 보성 녹차의 명품화·세계화 추진 ▲벌교고막의 브랜드화와 가공시설의 확충 ▲보성 녹돈과 보성삼베 등 고품질 농·축·특산물의 브랜드화 사업 ▲득량·조성의 평야지역 특화작목 개발 육성 등 친환경 농·수·축산업의 진흥을 꾀할 계획이다.

또한 보성군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 최대의 차밭과 일림산·초암산 자연철쭉 군락지 등 산림자원의 활용과 주암호 주변 호반경관, 득량만·여자만의 해양관광권을 개발하고, 벌교 갯벌 생태체험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충해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어 발전 할 수 있는 균형있는 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kwangju.co.kr

김 일 태 영암군수

J프로젝트 추진 적극 공조 대불국가산단 면모 일신

생명농업으로 소득증대 '왕인 뉴플랜' 인재 육성

"서해안시대의 새 중심, 꿈과 희망의 선진 영암건설을 위해 군민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신명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전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일태(62) 영암군수는 "지방자치는 생활인 만큼 정치논리를 배제해야 하며 여야 없이 영암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서로 타협과 협조속에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고 군민화합을 강조했다.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 군수는 군정방침을 ▲생명농업 육성으로 소득증대 ▲소득을 창출하는 관광산업육성 ▲군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실현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과 열린 행정 구현 등 5가지로 정하고 "행복한 군민, 풍요로운 새영암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우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은 경지면적과 비옥한 농토를 자랑하는 신 농업시대의 중심지로 발전토록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군과 농협, 군민이 공동출자하는 '영암농축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해 판로확보를 마련하고 '농업발전 기금'설치와 '바이오농업사업단'조직으로 일류농업인을 육성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영암의 미래성장 동력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 프로젝트)에 적극 공조하고 "대불 국가산단의 분양률을 높여 일자리 창출과 국가산업단지로서 면모를 일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호읍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의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상생의 생명 중심도시를 건설하고, 영암읍·신북면 등 동부권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 종합개발 계획'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령 인구가 늘고 있는 농촌실정에 대응해 '효도연금 지급 조례 제정'과 '효사랑 전문 요양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장애우 우선고용 조례제정'과 실천으로 복지 일류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 월출산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풍광과 역사, 문화 등 관광산업 자원을 바탕으로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의 획기적인 자문을 얻어 영암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스포츠 테마파크와 월출산 스카이 관광산업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교육분야는 역점사업으로 추진, 반드시 1등 교육 군으로 만들겠으며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왕인 뉴플랜 인재육성'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삼호읍에 '자립형 특수목적 고등학교 설립'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타운'을 건립해 민선4기에는 자녀교육 때문에 영암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영암=김한남기자 hnkim@kwangju.co.kr